

# 담양 청초마을 자치규약으로 웃음꽃 활짝

마을자치회 시범사업...칭찬하기·행사 참석 등 8개항 구성  
말복 복달임 잔치 남성 음식 준비 활기 넘치는 마을 만들어

‘서로 칭찬하기, 남을 헐뜯지 않기, 율령 불참 시 벌금 내기, 마을회의·행사에는 무조건 모이기’

담양군남면 청초마을의마을자치규약이다. 이 규약 덕에 모든 주민은 마을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늘 함께 하다 보니 즐거움과 웃음이 넘쳐 마을에 활기가 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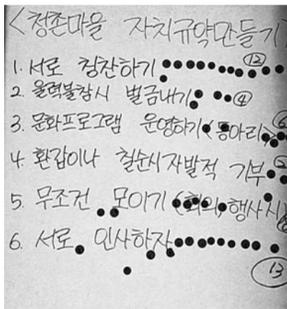
청초마을 주민들이마을자치규약을만든 계기는담양군의 ‘마을자치회 시범사업’이다.

담양군은 화목한 마을 만들기 위한 특색사업으로 ‘마을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비 1600만원을 들여 청초마을 등 16개 마을에 마을자치회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마을자치회 운영 교육을 받고 자체 회의를 거쳐 청초마을 자치규약을 제정했다.

규약에는 서로 칭찬하기, 남을 헐뜯지 않기, 율령 불참 시 벌금내기,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기, 환갑·칠순잔치 시 자발적 기부, 이웃을 소중히 여기기, 마을회의나 행사에는 무조건 모이기, 서로 인사하기 등 8개항으로 구성됐다.

마을자치규약의 첫 적용은 지난 18일 말복 복달임 잔치였다. 출향인과 마을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담양 청초마을 자치규약

해마다 해오던 복달임 잔치지만 올해는 파격이었다. 그동안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음식 준비, 설거지를 남성이 맡기로 했다. 대신 여성들은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공연을 선사했다. 여성들은 20여일 동안 저녁에 모여 합창 공연을 준비하면서 웃음꽃을 피웠다.

김중욱 청초마을 이장은 “마을자치규약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해 음식을 마련하고 어울리며 한마음으로 단합됐다”면서 “앞으로도 마을자치 활동을 통해 더욱 따뜻하고 정을 나누는 마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 기자 jgg@kwangju.co.kr



지난 18일 복달임 잔치를 연 담양군 남면 청초마을 주민들이 자치규약에 따라 남성은 음식을 준비(위)하고 여성은 공연을 선보였다. <담양군 제공>

# 편백숲서 즐기는 피톤치드·음악회

장성군 내달 15~16일 축령산 산소축제 다채로운 행사

전국 최대 편백나무 조림지인 장성 축령산에서 숲의 치유 기능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웰빙 축제가 열린다.

장성군은 다음달 15~16일 이틀간 서삼면 모암리 축령산 편백나무 조림지 일원에서 ‘제11회 장성 축령산 편백 산소축제’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최대 편백나무 숲이 조성된 축령산은 춘원 임종국(1915~1987년) 선생이 1956년부터 벌거숭이 땅에 나무를 심고 일생을 바쳐 가꾼 인공 조림지로 유명하다.

수령 60년 안팎의 아름드리 편백나무 250만 그루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는 지친 도시인들에게 활력과 재충전의 기를 불어 넣어준다.

그동안 축령산 편백 산소축제는 매년 8월에 열렸지만 지난해부터 무더위를 피해 9월로 옮겼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 ‘숲’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와 다양한 음악공연, 판매코너, 부대행사로 꾸며진다.

오전 9시부터 숲길을 돌아보는 ‘건강걷기 행사’에서는 스탬프를 받은 관람객 100명에게 매일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한다.

조용히 숲의 향기와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는 명상 호흡, 기체조 따라하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그랜드 운영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녹색 음악회’는 다음 달 15일 오후 1시20분부터 3시10분까지 열린다. 가수 조항조, 소프라노 신은정, 전자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 배우 전원주·이동준 등이 출연한다.

16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어지는 ‘산소 음악회’에는 이색 악기 연주자 장승일, 색소포니스트 오민석, 가수 변지훈·박현·임은산과 밴드 도시의 아이들이 출연한다.

공연도 풍성하다. 빅밴드 관현악단의 클래식 공연, 추억의 DJ쇼, 가수 안영진의 공연이 이틀간 연이어 열린다.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한 기념품 판매장, 숲속 식당, 숲속 주막, 숲속 먹거리, 야외 카페 등도 운영된다.

가족단위 관람객이 함께 할 수 있는 건강걷기, 어린이 백일장, 축령산 보물찾기, 숲치유사와 함께하는 축령산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편백나무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해소에 효과가 있는 항균물질 피톤치드를 소나무보다 4~5배 많이 함유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 같은 치유 효과를 인정해 지난 2010년 축령산을 ‘치유의 숲’으로 지정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화순군 10월부터 라돈측정기 무상 대여

화순군은 10월부터 하돈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활 방사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화순군은 추가경정예산에 600만원을 확보, 라돈 측정기를 구입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무상 대여할 방침이다.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대여방법은 신분증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순서에 따라 최대 2일간 사용할 수 있다.

라돈 측정 결과 수치가 높게 나오면 라돈 의심 제품을 제거하고 수시로 실내 공기를 환기해야 한다. 라돈 권고 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은 148벵크렐 이하, 신축 공동주택은 200벵크렐 이하다.

문형식 화순군 환경과장은 “라돈 침대 사태로 인해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하돈 측정기 대여 요청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 화순 부영아파트 2년 연속 임대료 동결

화순 광덕지구 부영아파트 임대료가 2년 연속 동결됐다.

29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주)부영주택과 협의해 화순읍 광덕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5개 단지의 임대료를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임대료 동결과 주변 주택임대료 변동률을 감안해 올해 임대료 인상을 검토했으나, 구충근 군수가 수차례 부영주택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부영아파트 임대료는 2006년과 2017·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5%씩 인상됐다. 화순지역 대부분의 임대주택이 부영아파트로 이를 대체할 임대주택이 없어 입주 주민들은 매년 5% 인상을 감수하면서 재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임대료가 동결되면서 세대당 연간 약 200만~500만 원의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보게 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임대료 동결로 광덕지구 부영아파트 5개 단지 4880세대 입주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 대나무로 미세먼지 잡는다

담양군 저감 시스템 구축 추진

바이오매스 업체와 업무 협약

대나무 폐기물 대체 연료 활용

담양군이 대나무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잡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나무 폐기물을 펠릿으로 만들어 석탄 대체 연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천연자원을 활용해 국제이슈인 미세먼지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바이오매스 생산업체인 (주)e그린과 천혜의 자연인 대나무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했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은 대나무 간벌 후 남은 대나무 폐기물을 활용해 대나무

바이오매스를 만드는 사업이다. 버려야 하는 대나무 파쇄물을 펠릿으로 만들어 석탄 대체 연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대나무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미세먼지의 원인인 석탄 사용을 억제해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식이어서 대기환경 개선뿐 아니라 대나무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나무는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1ha당 29.34t으로, 소나무 7.68t보다 3.8배 높은 지구온난화 예방 대표식물이다. 특히 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의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e그린은 한국에너지연구원으로부터 화력발전소 고장 원인인 펠릿 슬러지의 발생을 없애는 기술을 이전 받아 담양에 35억원을 투자해 펠릿 공장을 설립할 계획



담양군과 e그린은 최근 대나무 폐기물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양군 제공>

이다. 담양군은 대나무 폐기물과 숲 가꾸기 등으로 발생한 나무 부산물을 활용해 이 공장에서 펠릿을 생산하면 상당부분 수입 우드펠릿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이송진 박사는 “친환

경 연료 생산에 대나무 부산물을 활용하면 약 8000억원의 우드펠릿 수입비용 절감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대나무 연구를 통해 담양이 대나무산업 세계 최고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 기자 jgg@kwangju.co.kr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 ✓ 53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7층, 코너, 전망 좋음,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 ✓ 시세 - 1억 5000만원
- ✓ 급매 - 1억 1400만원

문의. 010-4920-9300